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23차,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공동체, 에베소서 2:11

-22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공동체, 에베소서 2:11-22입니다.

감옥 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에베소서 2장 10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토론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드렸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요점입니다.

바울의 요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매우, 매우 심각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죽었고, 3절에서 그는 우리가 본성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독교 이전 과거를 불순종의 아들들이 살았던 삶, 즉 불순종으로 특징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셨을 때, 경제적 지위, 키, BMI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그 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벌해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다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진실한 성격을 보였으며, 자비와 사랑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마치 그들을 끌어내려는 듯이 그 중간에 괄호 안의 줄을 내보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8절에서 그는 들어와서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때 좋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에 그들의 구원이 공동체나 관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도록 도전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토론에서 저는 제 연구 작업에서 하는 일의 몇 가지 이점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 과학과 사회 과학에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가 본문을 읽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이 특정 텍스트에는 실제로 텍스트에 표현된 주요 문제가 있으며, 여기서 제가 전달할 내용의 일부는 실제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커뮤니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커뮤니티에 속하는 방식에서 항상 많은 역할을 합니다. 사회 과학 연구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인지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것들.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훌륭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말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믿고, 그것이 당신의 자아감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인지적인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정서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서적 차원은 소속감입니다. 우리가 특정 그룹에 속한다고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매우 강한 가정에서 자라면,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사랑받는다 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소속감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평가적 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만들고, 무엇이 그들을 그들로 만드는 것일까 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노골적으로 강한 편견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들과 비교해서 평가하기 위해 제거 과정에 들어가게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준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자란 사람은 자신이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가족 의식 속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이 그룹에 속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는 주변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이방인은 아마도 로마인과 그리스인으로 구성되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폴로가 에베소에 있었던 걸 알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에 북아프리카인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다민족, 다인종적 배경으로 구성된 교회는 모두 개별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공동체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다니기에 좋은 학교이고, 아들이나 딸을 보내기에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칼리지라고 합니다. 고든 칼리지에는 아프리카나 아시아 출신의 소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체성 구성은 특정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우리가 하는 일 중 하나는 우리가 상위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가져오고 고든 커뮤니티라는 더 큰 정체성에 속한다는 강한 감각을 느끼는 곳입니다.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하죠. 좋아요.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영역이 당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 그들이 당신에게 보여주는 태도, 당신의 외모 감각, 인종, 신체 마크, 지수, 키 또는 당신이 입는 옷의 방식. 예를 들어, 교회에서 그 교회에 진정한 사랑과 연합이 있다는 지표로 무엇을 찾으십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내가 당신 지역에 가서 혈령한 바지를 입고 반짝이는 체인을 걸치고 바지가 표준에 거의 떨어져 나가면 벨트를 잡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 나를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방식과 나와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중 일부에게 혈령하게 바지를 입고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요점은 내가 그렇게 하면 당신이 나를 인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갈 때, 무엇이 당신을 그곳에 속한다고 느끼게 합니까? 당신이 그곳에 속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교회를 면밀히 관찰해 왔습니다. 3년 전, 저는 이 교회, 큰 규모의 교회에서 소수 민족이 매우, 매우 적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 명의 목사, 한 명은 스페인 사람이고 한 명은 흑인이었습니다.

갑자기, 저는 모든 예배에서 흑인과 스페인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특정한 것들, 특정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아, 저와 비슷해 보여서 제가 속한다고 느껴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 자신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현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이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편지에서 읽을 분열을 기억하면서, 제가 민족-인종 관계에서 네 가지 지표라고 부르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방인 배제를 떠올리며 테스트를 살펴봅니다. 네 가지 지표에서 이 아이들을 보세요. 민족-인종 관계에서, 다시 말해,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아마도 그리스인, 아프리카인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민족-사회적 고정관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일이 있었고, 바울이 그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한, 오, 예, 그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서 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 그런 문제는 하지 맙시다.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가 스페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특정 모임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흑인이고, 우리는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으세요? 사회적 정체성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는 제가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언어적 구축이나 라벨링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하거나 평가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라벨을 붙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흑인이라고 부르고, 스페인 사람이라고 부르고, 불법 이민자라고 부르고, 백인이라고 부르고,

온갖 이름으로 부릅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는 집시라고 부르고, 온갖 이름으로 부르며 고정관념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들과 우리 사이를 구분하는 언어를 구성합니다.

이 테스트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할레받지 않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들을, 네, 그들이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을 할레받지 않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 앞서 잊으셨다면, 저는 할레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에베소와 같은 이방인 도시에 있는 것은 멋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공중 목욕탕에 참여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당신은 남자입니다. 할레를 받았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21세기에, 당신은 무슨 문제냐고 말할 것입니다. 오, 그것은 문제였습니다. 21세기에, 당신은 할레를 받지 않은 미국에 있는 사람을 놀리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동유럽에 있다면, 그것이 혼합된 것을 보고 놀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혼합되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할레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에베소의 소수자 중 실제로 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실제로 다수자를 고정관념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일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할레를 받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교회에서 다수를 고정관념화하고 라벨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 측면에서 종종 이루어지는 또 다른 구분은 제가 종교적 지위 또는 종교적 구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싫어합니다. 오, 그들은 무슬림이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오, 그들은 침례교도이고, 우리는 오순절교도입니다.

오, 그들은 침례교도와 감리교도입니다. 그들은 가톨릭교도이고, 우리는 장로교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재정적으로 파산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장로교도와 감리교도가 같은 건물에서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오, 몇 년 전이라면, 그들은 싸웠을 거야. 그거 좋네. 그들은 방금 뭔가를 알아냈어.

그들은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막 알아냈습니다. 사회적 정체성 문제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때때로 고정관념은 시민권에 기반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측면에서 고정관념에 너무 깊이 빠지면, 믿으시든 말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정관념으로 규정하기 전에 더 알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슈미트라는 걸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은 독일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이 스미스라고 듣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 저 사람은 미국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이 반 데르 사르라는 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오, 그 사람은 네덜란드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오, 아니,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조심해야 해. 아니면 그 사람이 스칸디나비아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얻을 수도 있어. 오, 그들은 자유주의적인 사회적 사람들이야.

고정관념. 교회에서 정말 실제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텍스트에서도 정말 실제적이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표가 있으니 본문을 읽고 민족-성적 고정관념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고정관념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동사 구성을 살펴보세요.

풀은 그들이 전화한다고 말했어요. 보세요, 주목하세요. 종교적 고정관념을 보세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시민권. 그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문제 중 일부가 새롭다고 생각한다면, 교회라는 멋진 사람들의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 우리를 어디에서 데려왔는지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구축할 때, 우리는 신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높은 수준의 감사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읽어 봅시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이방인인 너희가 손으로 육신에 행한 할레라 하는 자들에게 할레받지 아니한 자로 불리웠던 것을 기억하라. 그때에 너희가 종교적이었고, 지금은 구별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나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멀어져 있고, 약속의 언약에 낯선 자들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1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되었느니라. 그가 친히, 친히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원수의 중간에 있는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 두 사람을 대신하여 한 새 사람을 자기 안에서 창조하시고,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해시키시어 원수를 죽이셨느니라. 그가 오셔서 멀리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전파하시고, 가까이 있던 자들에게도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18절 이하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 식구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잇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합쳐져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또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정관념과 함께, 바울은 이제 교회에 다가가서, 이 문제를 바로잡자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독교 이전 과거에, 여러분은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은 당신에게 새로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 제가 뭔가를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더해진다고 주장합니다.

맥락은 이 교회가 주로 이방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협할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맥락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믿음의 집안으로 초안되었습니다.

비효율성. 소수 집단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욕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더하는 언어는 효율성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비효율성, 마치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든 자격과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가 되는 세 번째 인종을 구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조금 진정시키려는 방식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이방인들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민족-인종적 경계를 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씀드렸으니, 에베소서 2장 11-12절로 가보죠. 바울은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사실의 진술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보세요, 그들은 여러분을 이 모든 것으로 부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고정관념으로 규정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세요, 여러분, 아시죠.”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육신으로 이방인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비밀이 아니고, 당신이 누구인지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라벨이 붙었습니다. 당신은 할레받지 않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분명하고 깊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유대인 공동체는 당신과 분명하고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할레받지 않은 자였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교적 입장은 절망과 불경건함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없이 있었습니다.

와우. 바울은 이방인들의 모든 형태의 교만을 꺾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교회에서 더 높은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교도적 배경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오는 모든 쓰레기들. 모든 종교 활동, 모든 이교도 의식, 그리고 그들이 보통 탐닉하는 모든 이교도 활동들.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들이 신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참 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경배할 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르테미스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데메테르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제우스 신전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에만 이교도 신사가 50개 있습니다. 에베소 밖에서는 그 수가 얼마일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집에서는 그들이 어떤 신을 숭배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거짓 신을 믿는다. 그리고 유대인 기준으로는, 그들은 참 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이 그리스어로 *Atheos*라고 부르는 존재이다.

신 없이. 무신론적 개념이 생긴 단어. 바울은 그들이 이 절망과 불경건함에 표시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시민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민 신분에 관한 한, 그들은 약속의 언약에 낯선 사람이고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번역자들은 외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바울이 낯선 사람과 외국인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두 단어는 실제로 한 단어가 마을에 임시 거주지를 둔 사람과 관련이 있고 다른 단어는 누군가의 집에 임시로 머물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집이라고 부를 영구적인 장소가 없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감각, 그리고 그 장소에서의 사회적 안정성은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이것이 그들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교회에 와서 이 모든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연합이 승리하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서 데려오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로 만드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13절. 개입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매우, 매우 값비싼 방식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와우. 여기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효과를 발휘하지만, 지금. 하지만 지금.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틀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영역에서. 거리는 없어졌습니다. 절망은 없어 졌습니다 .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많은 비용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로서, 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설명하려고 하면서, 그는 이제 유대인들을 매우, 매우 행복하게 만들지 못할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는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원수의 중간에 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두 사람을 대신하여 한 새 사람을 자신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해시키시고, 이로써 적대감을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셔서 멀리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파하셨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둘 다 한 영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가 얼마나 자주 우리 둘 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주목하세요.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일어난 일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은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적대감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고 느끼게 하는 심리적 틀과 사고방식이 무엇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셨습니다. 애정과 감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그들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적 감각은 우리가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구성하게 할 것입니다.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19절로 가면 그는 모든 유대인과 함께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합니다.

와우. 와우. 만약 당신이 유대인이었다면, 바울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세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강의 초반에 언급했듯이, 제가 가톨릭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찬송가 중 하나입니다. 평화, 완벽한 평화.

이 어두운 죄의 세상에서, 예수의 피는 평화를 속삭인다. 내면의 평화. 나는 전쟁 직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 봉사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

어느 시점에 유엔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과 다른 민족 출신의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유엔 직원들이 떠났을 때,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마도 거의 모든 경우에, 저는 그들 앞에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유일한 흑인이었습니다.

마나스티르 라는 마을이나 작은 마을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전쟁 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는 50%가 세르비아인이고 50%가 크로아티아인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의 장로인 형제 Zvonko가 팀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언어로 수리남이고, 저는 흑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르비아인들은 제가 세르비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내가 크로아티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나는 또한 전쟁 전에 운영되던 이 교회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줄 기회도 있었다. 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봉사하면서 어떤 대학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교훈을 얻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 형제 자매들이 저를 꺼안는 것을 보았고, 거의 100%의 경우, 그들은 제가 다른 인종이라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D'Arco, 제 성이 이 지역에서 첫 번째 이름이에요, 철자도 똑같아요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와서, D'Arco, 머리카락을 만져볼 수 있을까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앉아서 그들이 제 머리카락을 만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카락이 더 많았어요. 머리카락이 거의 다 없어졌거나, 아니면 전부 없어졌어요. 제가 주로 무슬림이고 세르비아계가 더 많았던 East Mosta에 있을 때 크로아티아 형제들과 함께 봉사했고, 보스니아 형제들과 함께 봉사했고, 제 통역은 크로아티아 사람이예요. 그곳의 형제 자매들이 제 통역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달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 교회에서 크로아티아 사람이 흑인을 위해 통역을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에베소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저는 흑인인데, 수년 동안 제가 흑인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백인이고, 심지어 색깔이 같은지 아닌지 비교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폴은 모든 민족-인종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전 유고슬라비아의 제 동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사실 목사들은 종종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는 전 유고슬라비아의 90년대 중반과 같은 취약한 시기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크로아티아인, 보스니아인, 세르비아인, 기독교인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고, 그들은 이상한 악센트를 가진 이상한 아프리카인을 껴안고 있는데, 그들은 내가 설교할 때 통역을 해야 할 때, 그들 중 일부에게 통역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것이 제가 처음에 사회적 정체성, 우리의 평화로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지역에서는 그것이 진짜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수도원에서 예배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제님, 저를 옆으로 데려가서 당신의 언어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당신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나요? 저는 잠시 멈추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알아요. 용서하는 것이 그녀에게 좋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저는 이 여인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했지만, 살아 있는 동안 그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는 평화는 세상이 아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며, 그는 평화를 전파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고, 그는 분리의 담을 허물고, 독을 허물고, 다툼의 뼈를 허물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법을 폐지하고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이를 행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평화의 왕자가 제공하는 평화를 경험하는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사물을 생생하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운데에 두고 싶습니다. 제가 거기에 놓은 이 다이어그램 의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 여기서 뭔가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가운데에 두지 않고, 개신교 십자가의 개념으로 평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신교 신학에서 우리는 몸 없이 십자가를 두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가 제거된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말하고 싶기 때문이지만,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고 싶기 때문에 그 위에 몸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승리주의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는 가톨릭 신학에서, 저는 그들이 부활을 더 강조하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올려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셨는지 설명할 때, 저는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이 그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육신으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죽으셨습니다. 와우.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종종 화해에 대해 말할 때, 마치 바울이 인간이 서로 화해하는 방법, 유대인과 이방인이 테이블에 앉아 협상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처럼 화해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에게 화해는 일어나지 않으며,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 화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안에서, 그의 육신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인지적으로 강하고 확고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한 분의 아버지께 속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가장 진정한 정체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죄와 편견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사물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을 축복하는 모든 것이 지워진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형제, 자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사회적 갈등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 그는 그의 육신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화해가 필요하여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실제로 형제 자매들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써 원수의 중간에 있는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물어 두 사람을 대신하여 한 새 사람을 자신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해시키고, 그리하여 적대감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적대감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 백성 사이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하기를 원했습니다 .

우리가 구원받은 곳을 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과 인종적 정체성이 우리의 가장 참된 상위 정체성, 즉 하나님 왕국의 시민과 하나님 가족의 구성원을 방해하도록 허용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이런 의미의 구원은 수평적 차원과 수직적 차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평화의 창시자입니다.

17절, 그는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14절 a, 그는 우리의 평화입니다. 15절, 그는 평화를 만듭니다.

그는 행복감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것 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포함하는 평화입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조금 풀어봅시다. 그리스도가 평화를 선포했다고 말함으로써 바울은 사실상 그가 평화를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멀리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은 아무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웠습니다. 이방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같은 자산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는 두 가지 자산을 한 영으로 아버지께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담대함의 감각, 한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한 순간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혜택이나 쉬운 접근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한 영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저는 2002년 가나에서 리젠트 대학교 총장과 회의를 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제 딸은 당시 두 살 반 정도였고, 제 첫째 딸이었습니다. 접수원이 제 딸이 문으로 와서 엄마가 아빠가 왔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네, 아빠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접수원은 대통령에게 접근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필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무실에 가려면 두 사람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 여성은 제 딸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아빠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딸은 아빠의 딸이에요. 그녀는 두 번째 부인에게 갔고, 그러면 그녀는 대통령 사무실에 전화해서 누군가가 당신을 보고 싶어한다고 말할 수 있었고, 그러면 대통령은 사람을 들여보내라고, 내가 약혼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두 번째 부인에게 왔을 때, 그 부인은 제게, 당신 딸이 제 아빠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거라고 말했어요. 제가 아빠를 볼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녀는, 당신 아빠가 회의에 가셨으니 여기 앉아도 돼요. 그녀가 그녀와 놀고 싶어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녀는 아빠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화를 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녀는 내 목소리를 들었어.

그녀와의 대화는 그게 끝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중요한 회의 한가운데로 곧장 달려가 내 무릎 위에 앉았다. 나는 그것이 약간 부끄러웠다.

하지만 이게 제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는지 아십니까? 이 소녀는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데 제한이 없고 어떤 리셉셔니스트나 비서도 그녀가 아버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적대감의 분열의 벽을 허물고 우리 모두에게 한 영으로 아버지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다가가고, 모든 취약성과 투명성, 때로는 순진함으로 그에게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한 영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버지라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여기의 관계적 차원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잠시 후에 제가 이야기할 가족 역학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정체성의 본질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커뮤니티는 더 이상 외계인도 낯선 사람도 없는 커뮤니티입니다. 이 커뮤니티에서는 그 범주가 세분화됩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커뮤니티에서 시민권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들은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료 시민이라고 바울은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동료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떨어져 살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은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주장할 것입니다. 사실, 이 새로운 공동체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안 식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집안의 일원이며,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한 영으로요. 와!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여러분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영은 초기 기독교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초기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에게 역사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말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알아요? 이들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일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집안의 일원입니다.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19절에서 언급했듯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 식구입니다. 때때로, 성도들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추측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

성도는 이스라엘인가 유대인인가? 성도는 유대인 기독교인을 가리키는가? 성도는 최초의 기독교인을 가리키는가? 성도는 모든 신자를 가리키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천사를 가리키는지 추측하기도 한다. 사실 성도라는 단어는 매우 직설적이다. 바울에게 성도는 하나님의 사용을 위해 따로 구별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추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 유언을 읽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백인, 황인, 흑인, 붉은색, 짧은 머리, 머리카락 없음, 키에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도입니다. 이런 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이 실제로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축 용어로 말하면 가정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모퉁잇돌입니다. 모퉁잇돌이라는 단어는 또한 캡스톤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캡스톤은 건물을 지탱하는 캡스톤이 되거나, 모퉁이돌은 건물을 단단히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모퉁이돌에 기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이 가정의 안정성을 굳건히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것을 그의 집으로 삼으실 성전입니다.

이 세션을 마치며, 19절에서 22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나 외국인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모퉁잇돌이십니다.

그 안에서 모든 건물이 함께 지어지고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지어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함께 지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로서 민족-인종 간 분열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예수의 중심성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집안의 시민으로서 함께 일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안식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집을 짓고 형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떠오르는 이미지는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온 곳이 연기로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살 때,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은 연합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러한 연합감이 만연할 때 발생하는 피해는 권세와 통치자들에 대항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대화에 사회학적 차원을 가져오고 이 시험에 접근하는 방식에 빛을 비추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나이지리아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그보족과 요루바족 사이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다양한 부족 사이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가나에 있다면 아칸족과 에웨족 사이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양 세계를 흑인과 백인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는 스페인 세계에서 피부색, 밝은 피부와 어두운 피부로 차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에 갇혀 죽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그의 가족으로, 그의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붙잡고 그것이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버려 둡니다. 이 토론을 계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연구 시리즈를 계속 공부하면서 어떤 것들이 더 명확해지거나 적어도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시작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것을 계속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3,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에베소서 2:11-22입니다.